



## 환경의 날, 기후위기 사회변화 대응전략 논의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ehkang09@suwon.re.kr

송이슬 탄소중립지원센터 파견공무원, yiseul16@korea.kr

### 요약

#### I 제53번째 세계 환경의 날(2024년 6월 5일) 주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지정되었으며 초기에는 건강, 생명, 생태가 주요 주제였으나, 최근에는 기후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녹색 성장 및 환경 정의로 변화

#### II 국가·경기도는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사회변화 대응전략 강조

- 국가와 경기도('23년과 '24년 각각 수립)는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제조업 중심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로부터의 공유 재산 및 인프라 대응 역량 강화 강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 달성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공공 RE100과 분산에너지 도입) 제시 (에너지 전환 통해 '30년까지 '18년 대비 45.9% 감축)

### 정책 제언

#### I 이상기후로부터 공공유산 보호 대책 추진

- 수원시 국가유산(팔달문 포함 101기의 국가유산을 관리)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비 보호대책 수립 추진 (「국가유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의 연계 추진)
- 수원시 보호수(720년 향나무 등 보호수 23그루, 노송지대) 관리계획에 이상기후 대비 생태 모니터링, 지반 점검 계획 강화

#### II 고(高)탄소 산업 업종 전환 지원 및 중소기업 RE100 지원

- 수원시의 고(高)탄소 업종(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의 사업 전환 컨설팅 및 근로자 직업전환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전환, 연료전환, 냉난방개조지원과 같은 중소기업 RE100 추진 지원 근거(조례) 정비 및 자원 확보 방안 모색

#### III 수원시 관내 주유소 대상 RE100 충전소 사업 추진

- 관내 주유소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규모연료전지) 생산 및 RE100 충전소로 전환

#### IV 공공 RE100 계획으로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가입하여 국제도시 경쟁력 확보

- 주민이용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등)부터 단계적 RE100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연계, 학교 RE100 사업 계획 수립

## 1 53번째 환경의 날 주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 □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1972년도에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

- 1972년 국제연합(UN)은 UN 인간환경회의<sup>1)</sup>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함. 1987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각국에 환경보전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 우리나라는 1996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지정하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듬해인 1997년에는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음

<UN 인간환경회의(1972)>



| 출처 : <https://dam.media.un.org/>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1997)>



| 출처 : 연합뉴스(2017.6.4.)

### □ 환경의 날 주제는 해마다 다양하게 선정,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도시 복원'에 초점

-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행사 개최지, 국제이슈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선정하며 그 간 지속가능, 저탄소,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플라스틱 퇴치 등이 있었음
  - Only One Earth, Care and Share(1997), Green Economy(2012), Think, Eat, Save(2013), Beat Plastic Pollution(2018), Biodiversity(2020)
- 2024년 세계 행사의 사막화, 토지 복원 주제는 기후위기에서 시작해 사막화된 지역의 산림화(regreen), 가뭄에 대한 해결, 훼손된 토양에 대한 복원과 같은 기후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sup>2)</sup>,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서의 경제적 도약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올해 세계 행사 슬로건은 "Our Land, Our Future, We are Generation Restoration(우리의 땅, 우리의 미래, 자연 기반 복원의 세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
    - UNEP의 「Generation Restoration project」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 복원 사업 촉진하기 위해 선택된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하는 것

1) 1972년 6월에 개최된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로서 113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UN 인간환경선언'을 채택

2) 세계 환경의 날 홈페이지([www.worldenvironmentday.global](http://www.worldenvironmentday.global))

**□ 우리나라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유치하며 국제사회 선도 의지 표명**

- 우리나라 환경의 날은 과거엔 주로 건강, 생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고 2010년대는 녹색성장과 사회 환경적 이슈, 최근에는 탄소중립, 지속가능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
  - 환경은 우리의 생명(1998), 깨끗한 환경은 소중한 미래입니다(2004), 녹색성장 성과를 온 국민과 함께(2012), 생명·환경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2017),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2021)
- 올해 국가 주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강국으로”이며, 수원시 환경의 날 슬로건은 “섬, 생태의 숨이 되다”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자연성 회복이 주제임
- 우리나라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로 하며 1997년 서울에서 행사 열린 이후 28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를 유치하여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기회로 기대
  - 2024년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2024년 하반기 예정) 이듬해에 개최되는 만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노력**

**□ 새로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기반 마련 대책을 포함하도록 기획**

-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경기도 기본계획(광역단위) 수립, 2025년에는 수원시 기본계획(기초단위)이 수립될 예정임
- 기존의 2050 탄소중립 계획,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을 두었으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차별 감축계획을 포함
  -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 대책”,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 국가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경기도 :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 「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

**□ 국가·경기도 기본계획은 정의로운 전환<sup>3)</sup>,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제시**

- 탄소중립은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므로 이에 따른 신(新)성장동력 확보,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

3)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녹색사업) 중앙정부는 CCUS<sup>4</sup>)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펀드 조성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태양광에너지 외의 재생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잠재량 조사, 분산에너지 확대를 대비한 전담기구 설립 등을 제시함
-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는 관련 법 제정, 사업 전환 비용 지원,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계획하였으며, 경기도는 조례 제(개)정, 기금 지원,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취약산업 DB 구축, 녹색산업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함
- (공유재산 영향 대응) 기후위기로부터 문화유산(문화재, 사적지)이나 공유재산(교통, 하천, 상하수도)의 화재 침수 대책 수립 및 유지 보수 강화 및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연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 및 탄소흡수원 가치 제고를 제시함

## □ 국가와 경기도 모두 사회구성원의 공감·참여·협력을 공통적으로 강조

- 정부는 전문가, 기업체, 지자체, 국민 등과 10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4대 전략 중 하나로 세우며 거버넌스 활성화,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전문가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인으로 구성)을 운영하고 분야별 협·단체, 대·중소 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국민 대상 공청회 등을 실시함
- 경기도는 5대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정책 수립·실행·평가 전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도민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활성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센티브 등을 계획함
  - 경기도는 기후도민회의 ‘스위처’(탄소중립 도민추진단 106명, 청년위원 52명)를 구성하고 5차례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도 기본계획을 수립함
  - 도민추진단에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에 전파·확산하는 역할과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

##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주로 신재생(태양광, 수소)과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전환(‘18년 대비 45.9% 감축)을 통해 달성하도록 계획

-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가장 많은 1억 2천만 톤(45.9%) 배정, 수송 부문 3천7백만 톤(37.8%), 산업 부문 2천9백만 톤(11.4%), 건물 부문 1천7백만 톤(32.8%)으로 계획

###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단위 : 백만 톤CO<sub>2</sub>eq)

구분	합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탈루 등	흡수/제거
2018년	727.6	269.6	260.5	52.1	98.1	24.7	17.1	-	5.6	-41.3
2030년 (감축률)	436.6 (40.0%)	145.9 (45.9%)	230.7 (11.4%)	35.0 (32.8%)	61.0 (37.8%)	18.0 (27.1%)	9.1 (46.8%)	8.4	3.9	-75.4

| 자료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4) 연료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국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폐지하고, 특히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을 확대하며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마련함
- (경기도) 경기도 감축목표를 2030년 40%로 설정, 건물 부문에 가장 강도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 확대 제시
  - 1기 신도시에 따른 노후 건축물, 신규 개발사업, 높은 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국가의 에너지 전환 부문이 지자체의 건물 부문과 대부분 직결되기에 감축대책의 큰 방향성은 국가와 유사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단위 : 백만 톤CO<sub>2</sub>eq)

구분	합계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제거
2018년	77.6	45.9	24.0	4.3	3.5	-1.5
2030년 (감축률)	46.6 (40.0%)	26.0 (43.5%)	17.7 (26.3%)	2.7 (37.5%)	1.8 (48.6%)	-1.5

| 자료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

- (경기도) 태양광에너지 중심의 경기도형 RE100 대책을 수립하여 기존 산업 인프라와 민관 거버넌스를 최대 활용하기로 계획함
- (경기도) 특히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산업단지 우선 공급 등의 과제가 두드러짐
  -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4.1%(2021년 기준)에서 2026년까지 100%로 상향(84MW 규모)
  -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산업단지에 물량 우선 배정, 유휴부지 내 설치, 설치비 저금리 융자지원, 에너지진단 및 시설 지원 등

### 3 수원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방안

**□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이 필요**

- 기존의 환경 이슈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평면적 주제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경 및 기후 이슈가 경제 성장,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됨
  - (예) 전기자동차 전환 등으로 전국에서 주유소가 매년 160개소 폐쇄되고 있음 (고재경 외, 2024)
  - 수원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체 종사자수는 최근 10년간 (2012~2022) 약 4.1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종사자수/사업체수 비는 2012년 14.0명/사업체수에서 2022년 7.3명/사업체수로 줄고 있어 영세화 진행 중으로 추정 (경기도 사업체 조사 통계)
  - 폭염, 혹한,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문화유산 (예: 하천 주변 수생태계, 수원시 지정 보호수, 수원화성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음
- 2025년 수립할 수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뿐만 아니라 ① 기후위기로부터의 공공 유산 보호 대책, ② 고탄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 및 종사자 보호에 대한 대책, ③ 에너지전환시대 공공 부문 RE100 대책 및 국제사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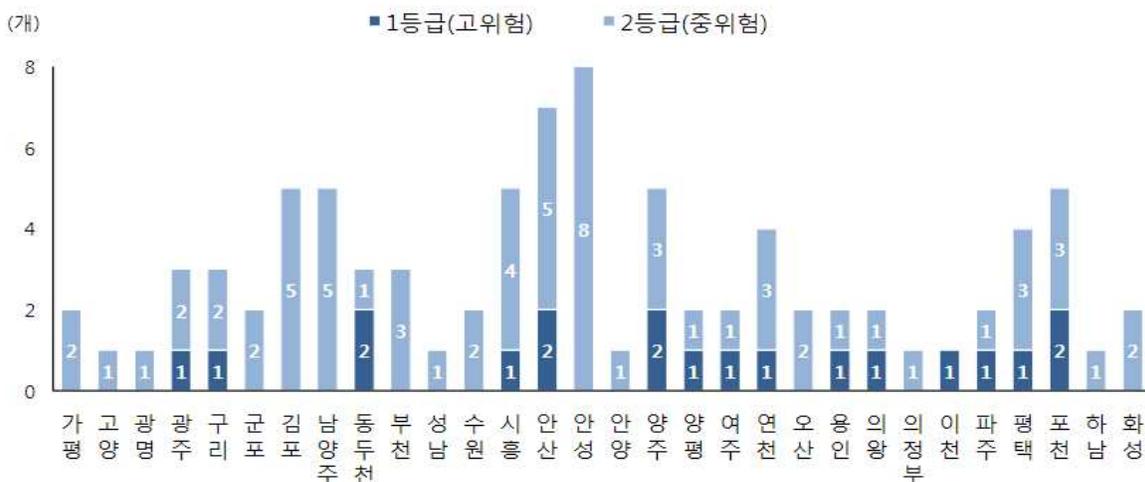
## □ 기후위기로부터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수원시 보호수와 노송지대 관리계획에 극한기후(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를 대비한 보호 대책 추진 필요
  - 수원시는 느티나무 17그루, 향나무 2그루 등 23그루의 보호수가 있으며 최장 수령은 권선구 탐동의 향나무 720년임
  - 수원시는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노송지대 총 3구역이 있으며 지정노송 34주 포함 614주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www.suwon.go.kr, 수원시 녹지경관과)
  - 기후변화로 평균온도 상승 시 침엽수인 소나무, 느티나무 생육이 취약<sup>5)</sup>해지므로 생태 모니터링 추진
  - 집중호우시 노송지대나 보호수 주변 토지의 지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점검 및 보호 대책 추진
- 수원 팔달문,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와 같은 국가 보물 및 사적에 대한 극한기후 대비 보호 대책 수립
  - 수원시는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수원 팔달문과 같은 국가지정유산 25기, 경기도 지정유산 28기, 수원시 향토유산 19기 등 총 101기의 국가유산을 보유 관리 (www.suwon.go.kr, 수원시 문화예술과)
  -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지자체 대상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 지역 문화재 돌봄 역할 제도화 및 신속 대응조치 연락망 강화와 같은 지자체 관련 과제를 포함하므로 연계하여 대책 수립

## □ 고탄소산업 업종 전환 지원 및 중소기업 RE100 지원

- 수원시는 경기도 10대 고탄소산업(업종)<sup>6)</sup> 중 중위험군(2등급)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부문 2개가 해당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출하액 대비 탄소비용 비중이 31개 시군 중 0.53%로 가장 높음
  - 전자부품 등 제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낮으나 종사자수 입지계수(LQ)<sup>7)</sup>와 사업체 LQ가 높음

<경기도 시군별 고탄소산업(업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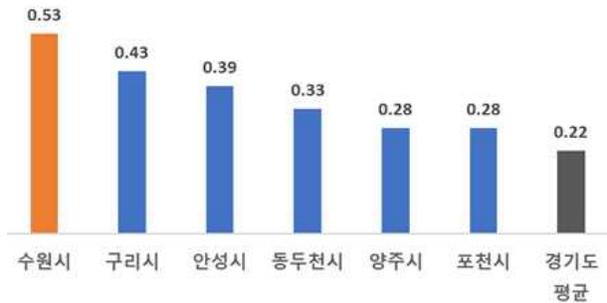


[출처: 고재경 외,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2022)]

- 5) 임동욱, 보호수로 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취약성 및 대응 (자연보존 151: 8-141; 2010년 9월)
- 6) 10대 고탄소산업(업종)은 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섬유제품 제조업, ④ 1차 금속 제조업, 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⑥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⑧ 식품제조업, ⑨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⑩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 중 산업·경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선정 (출처: 고재경 외, 2022)
- 7)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LQ)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그 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냄 (고재경 외, 20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출하액 대비 탄소비용 비중 (%)



<전자부품 등 제조업>

종사자 LQ와 지역경제 비중



[출처: 고재경 외,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2022), 그래프 재구성]

○ 수원시 고(高)탄소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사업 전환 컨설팅 및 근로자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원시 고탄소 중소기업 업종 목록, 운영 현황 및 근로자 수, 향후 사업 전환 가능성 및 중소기업 RE100 참여 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니즈 파악
  - 수원시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22년까지 구축되어 있으나 고탄소 업종 특화 자료는 최신 구축자료가 없음
  - 고탄소 중소기업 업종 수는 2016년 자료가 최신 구축 자료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128개에 1,919명이 종사하며,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체는 453개에 17,177명이 종사함 (경기도사업체조사의 산업소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경기도 기본계획 내 계획된 사업)와 연계를 통해 대응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디지털 전환, 연료전환, 냉난방기 개조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 RE100 추진 지원 및 재원 확보

-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E100 지원이 필요하며 주요 사업은 디지털 전환, 연료 전환, 냉난방기 개조와 같은 에너지 전환 및 고효율화로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
-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복지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 지원 근거가 미약하므로 지원 근거 정비
  -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은 22년 약 6억 원, 23년 약 9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
  -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공공주도 태양광발전소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여 재원 지속적 확보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약 240억 원 규모로 2023년 설치) 활용 방안 모색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사업자, K-RE100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기후테크 기업, 도민 등이 지원대상임 (고재경 외, 2024)

## □ 수원시 관내 주유소 대상 RE100 충전소 사업 추진

- 수원시 관내 주유소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전기 충전을 제공하는 RE100 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 RE100 충전소는 주유소 옥상에 태양광+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및 판매, 전기차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고재경 외, 2024)
    - 내연기관 자동차 전환으로 전국 주유소는 연평균 160개소 감소 추세(고재경 외, 2024)
  - 수원시는 현재 100개(2024.1.31, [www.data.go.kr](http://www.data.go.kr)) 중 자동차매매단지 인접 주유소 중심으로 우선 설치 검토
  - 주유소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 점검 및 필요시 제도 개선 추진

## □ 공공 부문 단계적 RE100 계획으로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가입

-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100% RE Cities & Regions Network)는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관, 도시 및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유럽 2곳, 남미 2곳, 아시아태평양 7곳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인제군), 아프리카 3곳, 북미 3곳의 총 17개 도시가 가입 (<https://iclei.org/100recitiesroadmap/>)
  - 최소 한 부문 이상에서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승인하고 실현가능성 조사, 국제 교류 및 협력 의지를 밝힌 도시가 가입 가능하며 공공 RE100 주제로 가입 제안
- 주민이용 공공시설인 도서관과 체육시설부터의 단계적 공공 RE100 계획 수립 및 추진
  - 수원시는 공공도서관 25개소와 작은도서관 143개소, 종합체육시설 4곳, 축구장 3곳 등 총 48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
  - 공공용지 및 건물 대상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에너지고효율화 설비로 개보수(단열, LED등 교체 등), 주변 공공시설의 폐열 및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활용 (예: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등)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 수립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연계를 통한 학교 RE100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학교 공공 부지 및 옥상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후 방과 후, 방학, 주말 등의 잉여 전기는 주변 건물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RE100 추진 계획 수립 및 제도 검토
    - 2024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해당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라 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도 탄소중립학교 사업(연간 5개 학교에 100kW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과 연계하도록 계획

### ■ 참고문헌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고재경 외 (2022)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2033), 고재경 외 (2024)

지역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발표자료 (2024)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http://data.go.kr))

[www.iclei.org/100recitiesroadmap](http://www.iclei.org/100recitiesroadmap)

## 수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중간보고회



### 2024년 5월 20일(월) 14시 | 수원시청 중회의실

「제3차 수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수원시 환경국장, 기후에너지과장, 유관 부서장 등과 자문위원으로 박찬 교수(서울시립대), 박진한 부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윤은상 이사장(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남궁형 대표(한국생태연구소)를 포함하여 28명이 참석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연구책임)이 발표하였으며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완 대책, 생태계 생물 다양성 대책 보강,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 지역재난대응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 탄소중립 강사단 보수교육



### 2024년 5월 21일(화) 13시 30분 |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탄소중립 교육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 및 수원시 최신 현황과 정책 동향을 전달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은하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탄소중립 전문강사 1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탄소중립 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향후 일정

### 2024년 주요 행사 계획

7월 : 수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제3차 수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보고회

2024년 지구로운 모임 지원사업 결과공유회

9월 : 제2회 탄소중립 세미나 & 간담회

10월 : 제3회 탄소중립 세미나 & 간담회

12월 : 제4회 탄소중립 세미나 & 간담회 및 탄소중립 포럼

연내 :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간담회

# SRI 정책 Brief